

뿌리 내린 곳



김준형의 청명곡니

임금님표 이천쌀, 철원 오대미, 용인 백옥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쌀들이다. 특히 경기미는 예로부터 밥맛이 좋기로 유명했다. 그런데 조선시대 재배되던 쌀과 현재 재배되는 쌀은 품종이 좀 다르다. 지금 재배되는 쌀의 상당부분은 '아키바레',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와 같은 일본 품종들이다. 이 쌀들은 찰지고 밥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제주 감귤은 무려 1000년 전, 고려 시대 기록에도 남아 있다. 조선시대가 되자, 감귤은 조정에 진상품으로 바쳐지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 말기로 갈수록 지독한 수탈이 이루어졌고, 견디다 못한 농민들은 굴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다. 이때 재래종 감귤은 거의 멸종되어 버린 것이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재배되고 있는 감귤은 1960년대 재일동포들이 '감귤묘목보내기 운동'으로 보내온 '운주귤' 품종이 주를 이룬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재배된 일본 품종의 쌀은 한국 쌀일까, 아니면 일본 쌀일까?

일본에서 건너와 한국에서 자란 감귤은 한국 감귤일까, 아니면 일본 감귤일까? 당연히 쌀은 한국 쌀이요, 감귤도 한국 감귤이다. 이천 쌀을 일본 쌀이라고, 제주 감귤을 일본 감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도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

얼마 전,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한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대표의 행동은 인 위원장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인종차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 전대표는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며, 말의 뉘앙스까지 정확하게 전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이 전대표도 정치인인데, 굳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을 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 위원장은 '너는 외국인이야.'라고 취급해서 엄청 섭섭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점 한 가지는 놓치고 있다. 귀화한 한국인과 북에서 오신 새터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분들은 한국이 좋아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한국인이 되신 분들이다. 그

럽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앞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귀화한 한국인 다섯 명 중 한명이 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조심해야 하건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 없이 뱉은 말이 이분들은 상처받기도 한다. 이 전대표와 인 위원장의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쌀을 바라볼 때처럼, 이분들을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

일본의 유명한 도예가 심수관옹이 방학하던 젊은 시절, 그의 아버지는 마당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들은 자신이 위해서 저 자리에 심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다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심수관옹은 이후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에게는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렸느냐가 진정한 문제이다. 귀화 한국인도, 새터민도, 전라도 촌놈 인요한 위원장도 모두 한국인이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인 것이다.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

고용 중하위권의 고착화



김연세 (정책사회부)

고용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적이 두 번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미·유럽 대륙으로 내뿜던 지난 2020년 2분기와 그해 3분기다. 그 이전과 이후는 매 분기 회원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올해 2분기에도 못 미친 데다 등수도 38개 회원국 중 중하위권(28위)을 유지했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 등 10개국의 3분기 수치가 최근 발표됐다. 10국 중에서도 우리는 7등에 그쳤다. 뉴질랜드(79.8%)가 1위, 일본(79.0%)이 2위, 호주(77.6%)가 3위다. 또 캐나다(4위)와 미국

(5위), 이스라엘(6위)이 한국에 앞서 있다. 우리나라(69.4%)는 개도국 2곳과 나란히 고용률 60%대를 기록했다. OECD가 해당 비교에 한국을 포함하기 시작한 1999년 3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70% 선을 넘지 못했다.

옆나라 일본도 20년쯤 전엔 70%를 하회했다. 지난 2004년 1분기에 한국(63.9%)과 일본(68.7%)의 격차는 4.8% 포인트(p)에 불과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1분기엔 7%p(65.5% 대 72.5%)까지 벌어졌다. 올해 3분기에는 9.6%p에 이르렀다.

올해 2분기 우리가 28위에 그칠 때 일본은 38개국 중 5위에 올랐다. 스웨덴, 독일, 덴마크, 캐나다, 영국 등에 앞섰다. 반면 한국은 OECD에 가입돼 있는 동유럽 5개국과 발트 3개국 모두에 뒤졌다.

폴란드의 약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한국보다 낮을뿐더러 2014년 초까지 50%대를 맴돌던 폴란드는 60%대를 넘어 재작년엔 70%대에 진입했다. 또 올해 2분기에 71.9%로, 미국(72.0%) 바로 다음에 위치했다. 에스토니아도 2000년대 초 한국보다 못했다. 당시 60%를 겨우 넘던 이 나라는 올해 2분기 11위(76.6%)까지 치고 올라갔다.

"20대 등은 인구가 감소한 탓에 취업자 수도 줄었다." 제법 그럴 듯한 정부 측 설명이지만 다른 나라도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다.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하겠습니다." 이 같은 문구가 선거철이면 재생된다. 그러나 올해도 국민(생산가능인구) 열에 셋 이상은 무직 상태고 국제고용경쟁 성적은 초라하다.

/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9일 (음 9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자녀에게 실질적인 힘을 보태 줘라. 48년생 동상 걸린 발을 얼음물에 담근다. 60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2년생 언덕과 골짜기가 바뀌니 주택청약을. 84년생 거품이 사라지니 현실은 냉혹하다.



37년생 내일을 위해 오늘 일을 마무리. 49년생 이기적인 마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61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73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시작. 85년생 십년생 목은 체중이 해소되는 하루이다.



38년생 내가 좋아도 남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50년생 위기가 있지만 귀인이 도와준다. 6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쇼핑을 하는 것도. 74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그만둘 수 없다. 86년생 좋은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다.



39년생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입단속 하라. 51년생 귀인을 만나면 단기투자도 괜찮다. 63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준비하자. 75년생 기회가 왔어도 재고 망설이기가 놓칠 수 있다. 87년생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후회한다.



40년생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살려야 한다. 52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 노를 저어라. 64년생 남의 의견에 좌우되지 말고 주관을 가지자. 76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88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41년생 힘들어도 손뼉을 크게 치고 다시 해보자. 53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내가 갈 길이 보인다. 65년생 변화의 날이니 외모에도 신경 쓰자. 77년생 금전과 사랑의 운이 따르는 하루이다. 89년생 가족들이 모이면 살얼음판이다.



42년생 바다로 여행을 떠나면 행운이 있다. 54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 66년생 자기 일이나도 피곤하니 좀 쉬어야 한다. 78년생 무에서 유를 창출하게 된다. 90년생 토끼가 죽으니 여부가 슬퍼하는 날로 우울해진다.



43년생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를 얻는 날. 55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는다. 67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잃을 것도 없다. 79년생 창업을 혼자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니 부담이 크다. 91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



44년생 모임은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 56년생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자기 할 일만 하라. 6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80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 돌 곳을 모르겠다. 92년생 이성과 의견충돌이 되어 이별 예상.



45년생 재산 분배 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니 의견통일이 우선. 57년생 한 줌의 흙이 산을 이루는 정성으로. 69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81년생 미련은 빨리 버리는 것이. 93년생 자존감이 지나쳐서 연인을 힘있게 한다.



46년생 갈 길이 멀어도 일단 시작하면 좋은 결과. 58년생 첫 손가락에 배부르기는 힘들다. 70년생 목이 마르면 직접 우물을 파라. 82년생 가족도 서로 도우며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 94년생 언제나 기술은 죽지 않으니 연마하도록.



47년생 구름이 걷히고 따스한 햇볕이 비친다. 59년생 손품에 뒀던 배가 굶이 순조로운 하루. 71년생 부자가 되려면 신용을 우선. 83년생 때를 안다는 것은 철이 든다는 것. 95년생 제사전통이 과거의 풍습으로만 인식됨이 없이 조상님 제사에 참석.

김상회의四季

환경과 기운



근목자혹이라는 말이 있다. 먹물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뜻으로 주변 환경에 물드는 것을 의미한다.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행동에 물들고 선한 사람과 친하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근목자혹이라는 고사성어는 풍수가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하다. 풍수는 기운이다. 예로부터 자연은 몸이 상한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넣어주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는 편안한 휴식을 줬다. 이런 기운을 생기라고 한다.

생기는 산이나 강을 따라 흐르는데 생기가 모여드는 곳이 명당이다. 명당에 터를 잡고 살면 건강이 좋아지고 재물이 모인다. 이는 생기가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몸에 병이 생긴 사람이 풍수 좋은 터에 살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몇 년씩 승진에서 탈락하던 직장인이 승진하고 수험생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일도 생긴다. 이런 일이 바로 근목자혹이다. 좋은 기운과 함께 살면서 생활 자체에 좋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람을 둘러싼 환경에는 선천적 환경과 후천적 환경이 있다. 선천적 환경은 타고난 것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없다.

후천적 환경은 살면서 만나는 것들인데 내가 선택하고 바꿀 수 있다. 풍수는 후천적 환경이다. 풍수는 사람과 인생을 더 좋게 또는 더 나쁘게 만들어 주는 후천적 환경이다. 좋은 집터가 있는 데도 나쁜 집터를 선택하는 것은 복을 차버리는 것과 같다. 좋은 터를 고르고 그곳에 산다면 후천적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의지로 풍수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선택은 삶에 생기를 물고 온다. 좋은 기운은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주는 견인차라고 할 수 있다.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터를 만나서 산다는 건 인생의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7	2
						6	
5				7			4
		7			4		
4		3		8			9
	5			9			
2			5				6
		6					
8	3					9	5

				9	6		
7		2		6		3	
6	1						2
			1		9		
	7						9
			3		7		
4						8	9
		8		5		7	1
3	9						

9	6	2	7	4	9	1	8	8
7	4	3	2	8	1	9	5	6
9	1	8	6	5	9	4	7	2
8	9	1	6	2	7	9	4	8
6	9	4	8	1	8	2	9	7
8	2	7	9	5	4	6	8	1
4	8	6	4	9	2	8	1	9
1	8	9	9	7	6	8	2	4
2	4	9	1	4	8	7	6	9

할인도서

9	7	2	1	4	8	6	8	9
1	8	4	7	9	6	8	9	2
6	8	9	9	8	2	4	1	1
2	9	1	4	7	8	9	8	6
8	6	7	5	2	9	1	4	8
8	4	9	6	8	1	9	2	7
4	2	8	6	6	9	4	1	9
9	1	8	8	9	7	2	6	4
4	9	6	2	1	4	8	9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1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